

# 한국어의 구개음화에 관한 일고찰\*

-일본자료<sup>1)</sup>를 이용하여-

진 남 택

## 1. 들어가기

구개음화(palatalization)는 한국어음운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sup>2)</sup>. 그러나 한국어문헌의 연구만으로는 구개음화의 시기 및 내적 전개과정, 그리고 음성적인 면에 관해서는 분석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런 점에서 外國文字로 한국어를 기록한 자료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으며,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어의 연구에 그다지 이용되지 않았던 「일본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어문헌의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음성 및 음운적인 면을 밝히고자 한다.

구개음화의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넓은 의미에서 다음의 음운현상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 (1) 齒音 [ts]/[dz], [tsh]이었던 /스/, /츠/의 조음위치가, 구개모음 /i/와 구개반모음 /j/의 앞에서 口蓋音 [tʃ]/[dʒ], [tʃh]로 되는 현상: 본고에서는 이를 <스 구개변이음화>라고 부르기로 한다.
- (2) /스/, /츠/의 조음위치가 구개모음 /i/와 구개반모음 /j/뿐 아니라, 다른 모든 모음의 앞에서도 口蓋音 [tʃ]/[dʒ], [tʃh]로 되는 현상: 이에 따라 <자 : 차> <차 : 차> 등의 대립이 사라지게 되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스 구개음화>라고 부르기로 한다.
- (3) /ㄷ/, /ㅌ/가 구개모음 /i/와 구개반모음 /j/의 앞에서 /스/, /츠/로 되는 현상: 이에 따라 <디 : 지>, <다 : 자>, <티 : 치>, <타 : 차>등의 대립이 사라진다. 본고에서는 이를 <ㄷ 구개음화>라고 부르기로 한다.
- (4) /ㄱ/가 구개모음 /i/와 구개반모음 /j/의 앞에서 /스/로 되는 현상: 본고에서는 이를 <ㄱ 구개음화>라고 부르기로 한다.
- (5) /ㅎ/가 구개모음 /i/와 구개반모음 /j/의 앞에서 /스/로 되는 현상: 본고에서는 이

\* 본고는 일본어로 작성된 陳南澤(2001)을 기본으로 하여,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 새로운 부분을 보충한 것이다.

1) 본고에서는 중기한국어를 일본문자인 가나(假名)로 기록한 자료 및 日本語(琉球語)를 한글로 기록한 자료를 모두 「일본자료」로 부르기로 한다. 일본에서는 이를 「朝鮮資料」라고 부르며, 宋敏(1986)은 중기한국어를 가나(假名)로 기록한 자료를 「倭文字轉寫資料」라고 부르고 있다.

2) 한국어의 구개음화에 관한 연구사는 李明奎(1990) 參照.

를 <ㅎ 구개음화>라고 부르기로 한다.

- (6) 어두의 /ㄴ/이 구개모음 /i/와 구개반모음 /j/의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7) /ㅅ / : /ㅅ +j/의 대립이 사라지는 현상.

본고에서는, 우선 15-16세기초의 /ㅅ/이 口蓋音 [tʃ]/[dʒ]을 변이음으로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해서, 선행연구를 살펴 본 후, 琉球語<sup>4)</sup>를 한글로 기록한 『語音翻譯(1501)』에 나타나는 한글표기 <지, 직>를 분석한 服部四郎(1979)의 주장의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다음으로, 『全一道人』, 『物名』, Aston舊藏 『交隣須知』의 분석을 통해 <ㄷ 구개음화>와 <ㅅ 구개음화>, 어두/ㄴ/의 탈락과 <ㅅ>과 <ㅅ +j>의 합류의 相對的인 順序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Aston舊藏 『交隣須知』의 분석을 통해 <ㅅ 구개음화>의 내적 전개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ㄷ 구개음화>와 <ㅎ 구개음화>는 본고의 분석자료에 예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이런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은 본고의 분석자료가 서울방언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2. 분석자료

### 2.1. 語音翻譯<sup>5)</sup>

- 1) 成立의 시기 : 1501年
- 2) 著者 : 成希顔(1461-1513)
- 3) 形式 : 중국어를 漢字로 기록한 후, 이에 해당하는 琉球語의 문장과 단어를 한글로 기록하였으며, 총169項目으로 이루어져 있다.
- 4) 性格 : 15세기의 琉球語를 한글로 기록하고 있으며, 琉球語의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 2.2. 全一道人<sup>6)</sup>

- 1) 成立의 시기 : 1729年
- 2) 著者 : 雨森芳洲(1668-1755)
- 3) 形式 : 한국어 文章을 적당한 단락으로 잘라 가타가나(片仮名)로 轉寫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日語文을 잇대어 나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轉寫文 句데군데에 한글에 의한 음주가 베풀어져 있다.

- 
- 3) <샤, 셔, 쇼, 슈>와 같이 <자음 + 반모음 j>의 음운연쇄를 나타낸다.
  - 4) 현재의 일본 沖繩에 해당한다.
  - 5) 『語音翻譯』의 경우는, 한글로 기록된 琉球語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지 않으면 한국어의 음운사연구에 이용되기 어렵다. 『語音翻譯』의 琉球語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伊波普猷(1932), 服部四郎(1978a ; 1978b ; 1979), 多和田眞一郎(1994)를 참조하였다. 『語音翻譯』은 『海東諸國記(1471)』의 卷末에 附載되어 있다.
  - 6) 자세한 논의는 安田章(1964), 宋敏(1986) 參照. 以下, 『全一』로 줄여 부르기로 한다.

- 4) 性格 : 18세기초의 서울방언을 반영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 2.3. 物名<sup>7)</sup>

- 1) 成立의 시기 : 不明(18세기 後半으로 推定)
- 2) 形式 : 430여개의 한국어 어휘와 30여개의 문장이 가타가나(片仮名)로 記錄되어 있고, 그에 해당하는 日語文 또는 한자가 오른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 해당하는 한글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對馬島의 通事가 한국어를 학습할 때 이용한 辭典으로 추정된다.
- 3) 性格 : /- /의 비음운화(dephonologization)에 있어서는 『全一道人』보다 더 뒤의 時代를 반영하고 있으며, 서울방언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2.4. Aston 舊藏交隣須知<sup>8)</sup>

- 1) 成立의 시기 : 不明(18세기 後半으로 추정)
- 2) 形式 : 88개의 문장을 한글로 기록한 후 오른쪽에는 그에 해당하는 日語文을, 왼쪽에는 가타가나(片仮名)로 音注를 달고 있다.
- 3) 性格 : 『物名』보다 더 後代의 음운적 특징이 나타난다.

## 3. 한국어의 구개음화

선행연구에 있어서의 論點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15세기의 /s /의 변이음으로 口蓋音 [tʃ]/[dʒ]가 존재하였는가? 즉 <스 구개변이음화>의 시기의 문제.
- 2) <ㄷ 구개음화>는, /s /에 구개변이음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났는가, 아니면 /s /가 /i/와 /j/의 앞에서 口蓋音化한 후에 일어났는가? 즉, <스 구개변이음화>와 <ㄷ 구개음화>의 상대적인 순서<sup>9)</sup>의 문제로서, [t] > [ts] > [tʃ]의 순으로 변화하였는가, 아니면 [t] > [tʃ]로 변화하였는가?
- 3) <ㄷ 구개음화>와 <스 구개음화>의 발생 및 완성시기, 그리고 두 변화의 상대적인 순서는 어떠한가?

이중, 2)에 관해서는 본고의 자료의 분석에서는 알 수 없으므로 다루지 않고, 1)과 3)을

7) 자세한 논의는 李康民(1993), 鄭光(1996) 參照.

8) 岸田文隆(1998 ; 2000) 參照. 以下, 『交隣』으로 줄여 부르기로 한다.

9) 許雄(1964)은 <ㄷ 구개음화>가 일어난 후에 <스 구개변이음화>가 일어났다고 주장하였으며(李明奎(1990:36)에서 再引用). 이에 대해 李基文(1972b:68)은 <스 구개변이음화>가 <ㄷ 구개음화>의 전제가 되므로 <스 구개변이음화>의 시기가 상대적으로 빨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3.1. <자 구개변이음화>

#### 3.1.1 선행연구

다음에서 보듯 선행연구에서는, 『訓民正音解例』(1446)에 나타나는 ㅈ에 관한 記述과 15세기 문헌에 <자 : 자> 등의 표기가 엄밀하게 구별되어 나타나는 점, 그리고 중국어를 한글로 記錄한 문헌 등을 근거로, 15세기의 /ㅈ/의 조음위치가 현대서울방언(口蓋音 [tʃ]/[dʒ])과는 달리 齒音 [ts]/[dz]이었다고 推定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ㅈ/가 /i/와 /j/의 앞에 올 때에도 齒音이었는지에 관해서는 한국어문헌자료의 분석만으로는 알기 어렵다.

許雄(1985:382-388)은, 1) 15세기의 음운현상과 2) 중국어의 齒頭·整齒音과 한국어의 齒音을 對比한 『四聲通攷』 凡例의 記述을 근거로, 당시의 /ㅈ/, /ㅊ/, /ㅉ/은 齒音 [ts] [tsh] [s]이었으며, /ㅈ/은 아직 구개음화하지 않았다고 추정했다.

李基文(1972b:66-67)은, 13세기에 들어온 中世蒙古語의 口蓋音[dʒa][dʒe]를, 간자뎐, 절다뎐에서 볼 수 있듯이, <자 저>가 아닌 <자 저>로 받아들인 점을 들어, 이는 한국어의 破擦音 /ㅈ/가 [ts][dz]이었으므로 蒙古文語의 口蓋音 [dʒ]를 나타내기 위해서 [ts]에 [j]를 첨가한 [tsj]가 이용되었음을 암시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ㄷ 구개음화>를 겪지 않은 서북방언의 /ㅈ/의 변이음에는 [ts]/[dz]만이 있으며, [tʃ]/[dʒ]는 없는 점을 들고, 이 점은 15세기의 서울방언에서도 같았을 蓋然性이 크다고 하였다.

李基文(1972a:198)은, 15세기에는 /ㅈ/, /ㅊ/, /ㅉ/에 口蓋音의 변이음은 없었으나, 18세기에 들어서서 구개모음 /i/와 구개반모음 /j/의 앞에서는 口蓋音으로 발음하고, 다른 모음의 앞에서는 아직 齒音으로 발음하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服部四郎(1979:13-17)은, 『語音翻譯』에 있어서 琉球語의 [tʃ]는 항상 한글의 /ㅈ tj/ 또는 /ㅊ tj/로 기록된 반면, 琉球語의 [ts][dz]는 /ㅈ, ㅊ/로 기록된 점을 들어, 한국어에 있어서 15세기말의 /ㅈ, ㅊ/은 [i]와 [j]의 앞에 올 때를 제외하고는 [tʃ] [tʃh]가 아니고 [ts] [tsh]이었다고 추정하였다. 또한, 다음 절에서 상세히 다루지만, 『語音翻譯』에 나타나는 한글표기 <지, 직>의 분석을 통해 당시의 한국어의 <지>는 [tʃi]이었다고 推定하고, 따라서 <자, 차>의 경우도 [tʃa]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몽고어 차용어의 분석을 통해 <자>는 [tsja]이었다고 주장한 李基文(1972b)에 대해서 <자>는 [tsja]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tʃa]([dʒa])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金周弼(1985:12-14)은 服部四郎(1979)의 說을 받아들여, 語音翻譯의 <지>는 口蓋音 [tʃi]이고 非口蓋音의 [tsi]를 표기하기 위해서 모음/\_/가 삽입되었으며, 15세기에 이미 /ㅈ/에는 변이음 [tʃ]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蒙古語의 차용어와 語音翻譯에 나타나는 琉球語의 한글표기의 분석을 통해 볼 때, 15세기의 /ㅈ/는 ([i] [j]의 앞에 올 때를 제외하고) 齒音[ts]이었다.
- 2) 15세기에 있어서, [i] [j]의 앞의 /ㅈ/가 [ts]이었는지 또는 [tʃ]이었는지에 관해서는 두

가지 주장이 병립한다. 許雄(1985)과 李基文(1972b)은 [ts]이었다고 추정하며, 服部四郎(1979)와 金周弼(1985)은 [tʃ]이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필자는 蒙古語의 차용어(李基文(1972b))의 경우나, 琉球語의 [tʃ]가 『語音翻譯』의 한글표기에 항상 /s +j/ 또는 /ʃ +j/로 나타나는 경우도, /i/와 /j/의 앞의 /s/가 [ts]인지 [tʃ]인지에 관한 확증은 될 수 없으며, 두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본다. 그러나, 語音翻譯에 나타나는 琉球語의 한글전사에 나타나는 <지>는 [tʃi]이고, <적>는 [tsi]([dʒi])이었다는 服部四郎(1979)說은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 3.1.2. 語音翻譯의 분석

語音翻譯에서 琉球語의 <\*ち(ti)><sup>10)</sup>에 해당하는 한글표기는 모두 <지>이며, <\*て(te)>와 <\*ぜ(ze)>에 대응하는 한글표기에 <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語音-11	취타지	ついたち <sup>11)</sup> tu'itati (初三日)
語音-13	밀지밀지	みちみち mitimiti (道々)
語音-24	우지바라	うちばら 'utibara (内原)
語音-64	지	ち ti (地)
語音-66	즌지	つじ tuzi (頂)
語音-68	오부미지	おほみち 'ohomiti (大路/道)
語音-69	구미지	こみち komiti (小路)

10) \*은 推定음을 나타내며, 가나(假名)의 로마자표기는 音聲轉寫(phonetic transcription)가 아니고, 文字轉寫(transliteration)이다. 음성전사인 경우는 [ ]에 넣어 표기하기로 한다. 다음은 가나(假名)와 로마자의 대응표이다.

あ(ア)	'a	い(イ)	'i	う(ウ)	'u	え(エ)	'e	お(オ)	'o
か(カ)	ka	き(キ)	ki	く(ク)	ku	け(ケ)	ke	こ(コ)	ko
が(ガ)	ga	ぎ(ギ)	gi	ぐ(グ)	gu	げ(ゲ)	ge	ご(ゴ)	go
さ(サ)	sa	し(シ)	si	す(ス)	su	せ(セ)	se	そ(ソ)	so
ざ(ザ)	za	じ(ジ)	zi	ず(ズ)	zu	ぜ(ゼ)	ze	ぞ(ゾ)	zo
た(タ)	ta	ち(チ)	ti	つ(ツ)	tu	て(テ)	te	と(ト)	to
だ(ダ)	da	ち(チ)	di	づ(ヅ)	du	で(デ)	de	ど(ド)	do
な(ナ)	na	に(ニ)	ni	ぬ(ヌ)	nu	ね(ネ)	ne	の(ノ)	no
は(ハ)	ha	ひ(ヒ)	hi	ふ(フ)	hu	へ(ヘ)	he	ほ(ホ)	ho
ば(バ)	ba	び(ビ)	bi	ぶ(ブ)	bu	べ(ベ)	be	ぼ(ボ)	bo
ぱ(パ)	pa	ぴ(ピ)	pi	ぷ(プ)	pu	ぺ(ペ)	pe	ぽ(ポ)	po
ま(マ)	ma	み(ミ)	mi	む(ム)	mu	め(メ)	me	も(モ)	mo
や(ヤ)	ya			ゆ(ユ)	yu			よ(ヨ)	yo
ら(ラ)	ra	り(リ)	ri	る(ル)	ru	れ(レ)	re	ろ(ロ)	ro
わ(ワ)	wa					ゑ(エ)	we	を(ヲ)	wo
ん(ン)	N								

11) 語音翻譯의 한글전사에 대응하는 琉球語는, 伊波普猷(1932), 服部四郎(1978a;1979), 多和田眞一郎(1994)를 참조하였다.

語音-127	파지	はち hati (鉢、大皿)
語音-132	피팍지	ひばち hibati (盆)
語音-145	크지	くち kuti (口)

그리고 <\*ㄷ(ze)>는 다음의 한 예가 있는데, 후술하듯이 이 예를 통해 服部四郎(1979)은 <\*치(ti)>에 대응하는 <지>와 <\*ㄷ(ze)>에 대응하는 <직>의 차이가 口蓋音과 非口蓋音의 차이라고 주장하였다.

語音-41	칸직	かぜ kaze (風)
-------	----	-------------

<\*て(te)>에 대응하는 한글표기에는 <디/데/터/제>가 나타나고, <되/지/더/저>는 나타나지 않는다. 服部四郎(1979)은 <\*て(te)>의 한글표기에 <되/뵈>가 나타나지 않는 점을 들어, 당시의 琉球語의 <\*て(te)>는 이미 [ti] [di]로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て(te)>와 <\*で(de)>가 <디>로 표기된 예이다.

語音-37	파릴디	はれて harete (清了)
語音-43	쏘미디	つとめて tutomete (清早)
語音-59	아살디	あさつて 'asatute (後日)
語音-83	사랑가[괴]디 <sup>12)</sup>	しらげて siragete (精げて)
語音-109	푼디	ふで hude (筆)

다음은 <\*て(te)>가 <데>로 표기되어 있는 예이다. (<더>는 나타나지 않는다.)

語音-17	부데즈	ふてつ hutetu (二)
語音-32	구모데	くもりて kumorite (天陰了)
語音-33	파리데	はれて harete (清了)
語音-34	폴데	ふりて hurite (下雨)
語音-35	파릴데	はれて harete (清了)
語音-39	앙간데	あがりて 'agarite (日頭上了)
語音-61	데왕과즈	?? (來月)

모음 [i]의 다음에 오는 「-て(te)」는 <제>로 나타나는데, 이들 통해 이미 이 시기의 琉球語는 이런 음성환경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3)</sup>. (<저>로 표기된 예는 나타나지 않는다.)

語音-8	타제	たちて tatite (立ちて)
語音-9	탈제	たちて tatite (立ちて)

12) 語音翻譯의 한글전사가 잘못되었다고 여겨지는 부분에는, 바르다고 추정되는 한글을 [ ]에 넣어 표기하기로 한다.

13) 琉球語의 구개음화에 관해서는 多和田(1994:455-483) 參照.

語音-11	긴제	きて kite (來て)
語音-40	야스며잇제	やすみ(?)いて yasumi'ite (落了)

참고로 <\*시(si)>와 <\*세(se)>에 대응하는 한글표기를 보면, <\*시(si)>는 모두 <시>로 나타나고 <\*세(se)>에 대응하는 한글표기에는 <세>와 <시><sup>14)</sup>의 두 종류가 나타난다. 다음은 <\*세(se)>에 대응하는 한글표기의 예이다.

語音-18	와가시	わかせ wakase (湯)
語音-5	신자	せざ seza (年長者)
語音-22	로미[노마]세 <sup>15)</sup>	のませ nomase (飲ませ)

語音翻譯에 나타나는 당시의 琉球語의 イ('i)列과 エ('e)列의 한글표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イ('i)	이	エ('e)	예??
キ(ki)	기/키	ケ(ke)	괴/(계??)
ギ(gi)	기	ゲ(ge)	괴
シ(si)	시	セ(se)	시/세
ジ(zi)	지	ゼ(ze)	즈
チ(ti)	지	テ(te)	디/티/데/제/터
ヂ(di)	--	デ(de)	디
ニ(ni)	니	ネ(ne)	네티/녀
ヒ(hi)	피/비	ヘ(he)	--
ビ(bi)	--	ベ(be)	빅
ミ(mi)	미(며)	メ(me)	믹/메
リ(ri)	리	レ(re)	리/릭

위의 表에서 알 수 있듯이, イ('i)列의 한글표기에는 一例를 제외하고 모음 <ㅣ>로 나타나며, エ('e)列의 한글표기는 매우 복잡(ㅣ, ㅋ, ㆁ, ㄱ, ㄴ)하게 나타난다. <ㄱ>는 <ケ(ke), ゲ(ge), ゼ(ze), べ(be), メ(me), レ(re)>의 한글표기에 나타나고 있다.

### 3.1.3. 服部四郎(1979)에 대하여

服部四郎(1979:3-5)은, 琉球 및 日本의 本土 諸方言의 역사적 연구 및 비교연구를 통해,

14) 多和田(1994:47-48)은, 당시의 琉球語에 [si]와 [ʃi]의 대립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語音翻譯의 한글 표기로는 알 수 없다고 하면서, 伊江島방언에 [si]와 [ʃi]의 대립이 있는 점을 들어, 語音翻譯 당시의 首里방언에 있어서도, <\*세>에 대응하는 <시 [si]>와 <\*시>에 대응하는 <시 [ʃi]>가 대립하고 있었을 것으로 推定하였다. 만약, [si]와 [ʃi]의 대립이 있었다면, 服部四郎의 說에 따른다면 <\*세>를 표기하는 <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나 <시>는 표기에 나타나지 않는다.

15) 語音翻譯에서는 한글의 <ㄴ>과 <ㄹ>의 혼동이 많이 나타난다.

首里방언은 과거에 「A時代」 및 「B時代」의 최소한 두 단계의 시대를 겪었으며, 「A時代」에는 이 방언은 적어도 5개의 단모음음소 /*\*i, \*e, \*a, \*o, \*u*/를 가지고 있었으나, 「B時代」에는 단모음의 수가 5에서 3으로 줄었는데, 語音翻譯은 이 방언의 「B時代」를 代表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琉球語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었다고 추정하였다.

A時代	B時代	C時代(현대를 포함)
*ki	[*kji]	[tʃi]
*ke	[*kii]	[kji]

服部四郎(1979:4-5)은, 「B時代」에 속하는 語音翻譯의 琉球語에 있어서 [kji]와 [kii]의 발음의 차이는, 服部四郎(1978b:96)에서 奈良時代의 「甲類의 ㄱ(ki)」와 「乙類의 ㄱ(ki)」의 音價로 推定한 발음의 대립과 같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語音翻譯의 <기>는 음성적으로는 [kji]이고, 음운적으로는 /kji/라고 분석하고, <괴>는 音聲적으로는 [kii]이고 음운적으로는 /ki/라고 분석하고 있다.

服部四郎(1979:14)은 語音翻譯의 <칸지>를 [kādzi]로 추정하고 있다.

日本祖語	A時代首里方言	語音翻譯	現代首里方言
*kazai	*kaze	칸지 [kādzi]	kazi [kadʒi] <風>

이런 추정의 근거로 語音翻譯에서 琉球語의 [ti]와 [di]가 결코 <디 티>로 나타나지 않고 <디 티> 또는 <데>로 기록된 점을 들어, 琉球語의 「B時代」의 初期에 이 音節들이 [tʃi] [dʃi]이었던 時期가 있었다라도, 語音翻譯의 琉球語의 <\*て(te)>는 이미 [ti] [di]의 단계에 들어서 있으며, 따라서 A時代의 \*kaze의 경우에도 후에 [\*kādzi]의 단계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語音翻譯』의 時期에는 이미 [kādzi]로 되었다고 推論하고 있다. <\*카(ka)째(ze)>를 <칸지>로 표기하지 않은 것은 한국어의 /지/가 [tʃi]가 아니고 [tʃi]이었기 때문이며, <지>로 표기하는 것에 의해 [tʃi]를 나타내고 있다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て(te)>의 한글표기에 <디 티> 외에도 <데>가 나타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て(te)>가 어휘에 따라서는 아직 [ti] [di]의 단계에 들어서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語形에 <디>와 <데>가 모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당시의 琉球語의 <\*て(te)>의 발음은 [ti]뿐만 아니라 [te]도 있었다고 推定할 수 있으며<sup>16)</sup>, 한글표기는 그 音價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語音-33	파리데	はれて harete (清了)
語音-35	파릴데	はれて harete (清了)
語音-37	파릴디	はれて harete (清了)

그렇다면 琉球語의 <\*て(te)>를 [ti]로 단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지>를 [dʒi]로 볼 필연

16) 일본의 이로하(いろは)歌를 한글로 기록한 弘治5年伊路波(1492)에도, 日本語의 エ('e)列은 한글< ㅐ> 또는 < ㅓ>로 표기되어 있다(河野六郎(1952)). 이런 표기의 경향은 『捷解新語』 『倭語類解』 등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土井洋一外(1959:2-7)).



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긔ᄃᆞ, 뫼, 뫼, 뫼>의 모음을 [ii]로 해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꺨>의 모음도 [ii]로 해석하는 것이 한글표기의 해석으로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칸꺨>의 <니>의 한글표기는 [i]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琉球語의 ɛ('e)列의 모음의 음가의 하나인 [ii]를 나타내는 것이며, 齒音 /ㄷ/, /ㅅ/, /ㄴ/과 <니>의 연속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시의 琉球語에 그런音が 없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tsi]와 [tʃi]의 음운대립이 없던 한국어의 話者가, 두 자음의 차이를 구별하여 표기할 수 있었을 까라는 점도 고려에 넣어야 할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語音翻譯의 <지>와 <꺨>의 차이는 모음음가의 차이이며, <지>를 [tʃi]로 볼 수 있는 필연성은 없으며(그러나 <지>를 [tʃi]로 볼 가능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의 /ㅅ/에 구개변이음이 있었는지는, 蒙古文語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語音翻譯의 분석에 있어서도 단정할 수 없다.

## 3.2. <ㄷ 구개음화>와 <ㅅ 구개음화>

### 3.2.1 선행연구

<ㅅ 구개음화>의 시기에 관해서는, 15세기에서부터 19세기초까지의 다양한 견해가 있다<sup>18)</sup>.

李基文(1972a:196-198)은, 19세기의 문헌에 <자:자>와 <저:저>의 混記가 많이 나타나는 점을 들어, 이 시기에는 /ㅅ/과 /ㅅ+j/의 대립이 없어졌다고 보고 있다. 李基文(1972b:68)은, 15세기의 한국어에서는 /ㅅ/과 /ㅅ+j/의 뒤에서도 V: jV의 대립이 嚴密히 지켜졌으며, /ㅅ/의 뒤에서도 같았다고 지적한 후, <ㅅ 구개음화>는 18세기以後에 일어났다고 추정했다.

許雄(1985:492-494)은, <ㅅ 구개음화>의 시기를 1800年 前後로 추정하고, /n/이 /i/의 앞에서 탈락한 것도 18세기말에서 19세기초에 일어났다고 추정하였다.

金周弼(1985:45)은, 한국어문헌에 나타나는 混記를 분석하여, <ㅅ 구개음화>의 시기는 18세기 후반이라고 추정하였다.

金周弼(1994:168)은, 서울방언의 <ㄷ 구개음화>는 17세기의 中後期에 비어두음절에서 시작하여, 18세기에 들어서 확산되었다고 하였다.

宋敏(1986:137-138)은 한국어의 문헌과 『全一』에 나타나는 한국어의 가나(假名)전사표기를 분석하여, 『全一』에 있어서 /ㄷ+j/와 /ㅅ+j/의 가나(假名)표기에 차이가 없는 점을 들어, 『全一』의 시기(1729)에는 이미 <ㄷ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한국어문헌의 분석을 통해 <ㅅ 구개음화>의 발생과 확산의 시기가 <ㄷ 구개음화>의 발생과 확산의 시기보다 빨랐다고 주장하였다(68-74).

그러나, 宋敏(1986)은 <ㄷ 구개음화>의 분석에는 『全一』를 이용하면서, <ㅅ 구개음화>의 분석에는 『全一』를 제외하고 있는데, 『全一』의 가나(假名)표기에 /ㅅ/과 /ㅅ+j/가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17) 앞에서 언급한 대로 服部四郎(1979:4-5) 역시 語音翻譯의 <긔>를 音聲的으로는 [ki]로, 음운적으로는 /ki/로 해석하고 있다.

18) 李明奎(1990:36)에서 再引用. 姜信沆(1983)은 15세기, 李明奎(1974)는 16세기초, 李基文(1972a:196-198)은 18세기以後, 許雄(1985)은 19세기초라고 주장하였다.

<ㄷ 구개음화>의 시기에 관해서는 크게 18세기 이전이라는 주장과 18세기 이후라는 주장으로 나눌 수 있다(李明奎(1990:37-47)). 예를 들면, 李基文(1972b:68)은, 서울방언의 <ㄷ 구개음화>가 대체로 17세기와 18세기의 교체기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3.2.2. 한글과 가나(假名)音注의 대응표

다음의 표는, 『全一』, 『物名』, 『交隣』에 나타나는 「(ㄷ, ㅌ, 스, ㅌ) + 모음」과 가나(假名)音注의 대응표<sup>19)</sup>이다.

	全一(1729)	物名(18세기後半?)	交隣(18세기後半?)
도	ト(to)/トウ(to'u)/ド(do)	ト(to)/トウ(to'u)/ド(do)/ド ウ(do'u)	ト(to)/トウ(to'u)/ド(do)
토	ト(to)	ト(to)/トウ(to'u)	--
조	ソ*(so*)	ツヲ(tuwo)	--
초	ソ*(so*)/ツ(tu)	ソ*(so*)/ソ*우(so*'u)/ツヲ (tuwo)	チヨ(tiyō)/ツヲ(tuwo)
дю	チヨ(tiyō)	チヨ(tiyō)/チヨウ(tiyō'u)	チヨ(tiyō)
쵸	チヨ(tiyō)	チヨ(tiyō)/ジヨ(ziyō)	チヨ(tiyō)
쵸	--	チヨ(tiyō)/チヨウ(tiyō'u)	--

	全一(1729)	物名(18세기後半?)	交隣(18세기後半?)
두	ト(to)/トウ(to'u)/トヲ(towo)	ト*우(to*'u)	ツウ(tu'u)/ヅウ(du'u)
투	ト(to)	トウ(to'u)	--
주	ツ(tu)/ヅ(du)	ツ(tu)	ツウ(tu'u)
추	--	チ(ti)	--
듀	チユ(tiyu)	チユ(tiyu)/チウ(tī'u)	ツウ(tu'u)
쥬	チユ(tiyu)	チユ(tiyu)	ツウ(tu'u)
쥬	--	チウ(tī'u)	ツウ(tu'u)/チウ(tī'u)
드	ト(to)	ト*(to*)	ツ(tu)/ツウ(tu'u)/ヅ우(du'u) /ト(to)/トウ(to'u)
트	ト(to)	ツ(tu)/(チユ(tiyu)?)	ツ(tu)
즈	ツ(tu)	--	--

19) 1) <ソ\*><サ\*>등 가나(假名)의 뒤에 붙는 \*은濁點이 세개인 것을 나타낸다.

2) <초>항목에 나타나는 <ツ>는 모두 비어두음절에 나타난다.

全一 51 못춤내 모쯔쯔나이

物名 7오 (아춤) 아쯔쯔람

交隣 8-4 앓춤의 아쯔쯔람이

3) <저>의 항목에 관련하여, 『全一』에는 語尾의 <저>가 <チヤ/チヤ>로, 『交隣』에는 <チヨウ>로 표기된 예도 나타난다.

	全一(1729)	物名(18세기後半?)	交隣(18세기後半?)
자	ザ(za)/サ*(sa*)/サ(sa)	ザ(za)/ザア(za'a)/ツア(tu'a)	チヤ(tiya)/ヂヤ(diya)/チア(ti'a)
즈	ソ*(so*)/ゾ(zō)/ツ(tu)/ヅ(du) /ザ(za)	ザ(za)/ザア(za'a)/ツア(tu'a)	チヤ(tiya)/チア(ti'a)
차	サ*(sa*)	--	--
츠	ソ*(so*)/サ*(sa*)/ツ(tu)	ツア(tu'a)/サ*(sa*)/ツヲ(tuwō)	チヤ(tiya)/チア(ti'a)/ツヲ(tuwo)
다	--	チヤ(tiya)/チヤア(tiya'a)	チヤ(tiya)
쟈	チヤ(tiya)/ジヤ(ziya)	ジヤ(ziya)/シヤ(siya)/チヤ(tiya)	チヤ(tiya)
차	-	--	--

	全一(1729)	物名(18세기後半?)	交隣(18세기後半?)
저	ソ*(so*)	ゾウ(zō'u)	ソウ(so'u)
쳐	ソ*(so*)	--	--
더	テ*(te*)	チエ(ti'e)/ヂエ(di'e)	チエ(ti'e)
저	テ*(te*)/ゼ(ze)/チヨ(tiyō)/ヂヨ(diyo)	チエ(ti'e)/ヂエ(di'e)	チヘ(tihe)/チエ(tiwe)/ヂエ(diwe)
쳐	テ*(te*)/チヨ(tiyō)/チヤ(tiya)	チエ(ti'e)	チヘ(tihe)/チエ(tiwe)
제	ソイ(so'i)/サイ(sa'i)	ゾイ(zō'i)	ゾイ(zō'i)
체	サイ(sa'i)	--	--
데	テイ(te'i)/ゼイ(ze'i)	チエ(ti'e)/ジエイ(zi'e'i)	--
제	테이(te'i)/테*(te*)/ゼ이(ze'i) /チヨ(tiyō)	チエ(ti'e)/ヂエ(di'e)	チヘイ(tihe'i)
체	테*(te*)	--	--

	全一(1729)	物名(18세기後半?)	交隣(18세기後半?)
디	チ(ti)	チ(ti)/ヂ(di)	チ(ti)/チイ(ti'i)
티	チ(ti)	--	チイ(ti'i)
지	チ(ti)/ヂ(di)/チイ(ti'i)	チ(ti)/ヂ(di)/ヂイ(di'i)/ジイ(zi'i)	チ(ti)/ヂ(di)/チイ(ti'i)
치	チ(ti)	チ(ti)/チイ(ti'i)	チ(ti)/チイ(ti'i)

### 3.2.3. <ㄷ 구개음화>

#### 3.2.3.1. 세자료의 분석

3.2.2의 表에서 알 수 있듯이, 『物名』과 『交隣』에 있어서 <디 : 지>, <ㄷ + j : 스 + j>, <티 : 치>, <ㅌ + j : 츠 + j>의 假名音注表記에는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全一』을 분석한 宋敏(1986:137-138)의 結論과 일치하며, 이 시기에는 <ㄷ 구개음화>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런 가나(假名)표기에는 당시의 한국어의 <ㄷ + j>와 <스 + j>의 발음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어문헌에 나타나는 /ㄷ/와 /스/의 混記를 분석

하여 <ㄷ+j>와 <ㅅ+j>가 합류하였다고 결론짓고 있는 선행연구를 참조할 때, 이 시기에는 이미 <ㄷ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交隣』에서도 다음과 같이 한글표기의 혼기가 보인다.

全一114	도흔	チヨホン tiyohoN
交隣13-5	도흐면	チヨフメン tiyohumeN
交隣5-5	죇사의	チヨツサライ tiyotusawo'i
交隣7-2	죇게	チヨツカイ tiyotuka'i
交隣4-3	똥게	チヨツカイ tiyotuka'i

### 3.2.3.2. 倭學書의 音注표기에 관해서

<テウ te'u チャウ tiya'u チョウ tiyo'u>의 한글음주표기의 해석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구개음화에 모두 관련되는 문제인데, 捷解新語를 위시한 倭學書에 있어서 한글음주표기는 대략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テウ te'u (テウ de'u) : ㄷ우/ㅈ우    예) 朝鮮(テウセン te'useN) : ㄷ우션/ㅈ우션  
 チャウ tiya'u (チャウ diya'u) : ㅈ우    예) 長(チャウ(tiya'u)) : ㅈ우  
 チョウ tiyo'u : ㅈ우

이 중 <テウ te'u>가 <ㄷ우>와 <ㅈ우>로 표기된 것에 관해서, 捷解新語原刊本(1676)의 경우에는 일본어의 존재하던 음성적인 차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sup>20)</sup>. 이는 한국어의 <ㄷ 구개음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일 일본어의 <テウ te'u>가 한국어의 <ㄷ우[tjou]>에 대응하고 <チャウ tiya'u·초우 tiyo'u>가 <ㅈ우 [tjou]>에 대응한다면, 이 시기의 한국어를 가나(假名)로 전사한 일본문헌에 <ㄷ>를 <テウ te'u>로 기록한 예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예는 나타나지 않으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倭學書에 나타나는 <ㄷ>와 <ㅈ>의 한글음주표기를 일본어의 존재하던 음성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捷解新語原刊本(1676)의 한글음주표기를 한국어의 <ㄷ 구개음화>의 시기를 결정하는 증거로 보는 데에도 주의를 필요로 한다.

### 3.2.4. <ㅅ 구개음화>

#### 3.2.4.1. 세자료에 나타나는 <ㅅ 구개음화>

3.2.2의 表에서 알 수 있듯이, 『全一』과 『物名』에서는, <ㅅ : ㅅ+j>, <ㅅ : ㅅ+j>의 가나(假名)표기가 엄밀히 구별되어 나타난다. 이는 全一(1729)과 物名の 시기에는 <ㅅ 구개음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18세기 이

20) 安田章(1987:294-295), 辻星兒(1997:47), 趙燭熙(2001:280-304) 참조.

전의 한국어 문헌에 나타나는 <ㄷ>과 <ㅅ>의 혼기를 <ㄷ 구개음화>의 예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몇 개의 어형에 혼기가 나타난다고 해서 합류가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혼기가 나타나는 어형은, 하나의 어형에 두가지 음성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이런 어형들이 변화의 발단을 나타내는 것으로는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交隣』에서는, <저 : 저>의 대립을 제외하고는 한국어에 대한 가나(假名)표기에 구별이 없어지는데, 이는 <ㅅ 구개음화>가 일어난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交隣』에 나타나는 가나(假名)표기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 3.2.4.2. 交隣에 나타나는 <ㅅ 구개음화>의 분석

#### 3.2.4.2.1 <ㅅ : ㅆ>

<자 즈 자>는 대체로 <チャ(tiya)/チア(ti'a)>로 나타나 구별되지 않는다. 이는 <자 즈>의 /스/가 口蓋音 [tʃ]로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交隣 18-4	개즈취	カイチャツイウイ ka'itiyatu'i'u'i
交隣 12-5	공작미	コムチャクミ komudiyakumi
交隣 17-5	자지	チャチイ tiyati'i
交隣 14-3	잔치나	チャンチャイナア tiyaNtiya'ina'a
交隣 4-4	잘	チャル tiyaru
交隣 7-1	잘못	チアルモツ ti'arumotu
交隣 2-1	장슈	チャムスウ tiyamusu'u
交隣 1-2	즈시	チャシイ tiyasi'i
交隣 15-1	즈스	チアサハニイ ti'asahani'i
交隣 10-3	죽홀울가	チャクハラルカ tiyakuhaworuka
交隣 17-5	죤을	チャムル tiyamuru
交隣 14-2	츠니	チャニイ tiyani'i
交隣 15-3	츄마	チアマア ti'ama'a
交隣 9-2	홈자	ヲムチア womuti'a

#### 3.2.4.2.2 <ㅈ : ㅊ>

交隣에 <죤>의 예는 나타나지 않으나, <츄>가 <チヨ(tiyō)/ツヲ(tuwo)>로 나타나며, <죤>은 <チヨ(tiyō)>로 난다. 이들 통해 이런 음성환경에서는 <ㅅ 구개음화>가 진행중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交隣 1-4	죤-	チヨムー tiyomu
交隣 5-5	죤사외	チヨツサライ tiyotusawo'i
交隣 11-3	만초가	マンチヨカ maNtiyoka

交隣 6-2	초목이	ツヨモウキイ tuyomo'uki'i
交隣 13-5	도흐면	チヨフメン tiyohumeN
交隣 7-2	좃게	チヨツカイ tiyotuka'i
交隣 4-3	똥게	チヨツカイ tiyotuka'i

3.2.4.2.3 <ㅌ : ㅍ>

<주/쥬/듀/쥬>는 대체로 <ツウ(tu'u)>로 표기되는데, <쥬슈>의 경우에는 <ツウ(tu'u)/치우(t'i'u)>의 두 종류의 가나(假名)표기가 나타난다. 이를 통해 이 대립은 사라졌지만, 自由變異音으로 [ts]와 [tʃ]가 나타났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주/쥬/듀/쥬>가 대부분 <치우(t'i'u)/치유(tiyu)>가 아니라 <ツウ(tu'u)>로 표기된 점이 특징적인데, 참고로 <두/드/투>도 <ツ(tu)>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당시의 <ツ(tu)>의 音價와 관련된 문제이지만, <주/쥬/듀/쥬>는 口蓋音보다는 齒音에 가깝게 발음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交隣 11-3	둥의	ツウグイ tu'ugu'i
交隣 8-3	더마쥬	タイマアツウ ta'ima'atu'u
交隣 13-4	주옴소	ツウヲフノイ tu'uwohuno'i
交隣 17-1	쥬석이	ツウセーキイ tu'useki'i
交隣 7-1	쥬슈	チウシウ ti'usi'u
交隣 12-1	쥬슈	ツウスウ tu'usu'u

3.2.4.2.4 <ㅈ : ㅊ>

이 대립은 엄밀히 구별되어, <저>는 <ソ(so)/ゾ(zō)>로, <져>는 <チへ(tihe)/チエ(tiwē)>로 나타난다. 참고로 <ㅈ : ㅈ+j>에 있어서도 같은 경향을 보여 <서 : 셔>는 가나(假名)표기에 있어 엄밀히 구별된다. 이는 중설모음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ㅈ/와는 다르게, /ㅈ/의 조음위치가 아직 前舌에 가까운 음이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초>가 <チヨ(tiyō)>로 표기된 것과 달리 <저/제>는 <ソ(so)/ゾ(zō)>로 표기되어 아직 <ㅈ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交隣 6-1	이제는	イゾイノン 'izo'inoN
交隣 5-5	이제야	イゾイヤ 'izo'iya
交隣 3-1	적의	ソウクイ so'uku'i
交隣 7-1	전의	チエヌイ tiwenu'i
交隣 12-4	절박	チエルバク tiwerubaku
交隣 18-3	절일을	チエギイルン tiwegi'iruN
交隣 1-1	경명	チヘムテム tihemumemu
交隣 13-5	시절이	シイチエルイ si'idiweru'i
交隣 10-5	퍼젓습너	ポウチエツソプノイ 'utiwetusonō'i
交隣 15-5	제스	チヘイサ tihē'isa

交隣 9-5	천동	チエントム tiweNtomu
交隣 11-1	천상	チヘムシヤグ tihemusiyagu

3.2.3.과 3.2.4.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세 자료 모두에서 /ㄷ tj/와 /스 tj/의 가나(假名)표기에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ㄷ 구개음화>는 이미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全一』과 『物名』에서는 /스/와 /스 tj/의 가나(假名)표기가 구별되는데, 이 시기에는 <스 구개음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3) 『交隣』에는 <스>와 <스 tj>이 일부 모음에서만 구별되어, 『交隣』의 시기에는 <스 구개음화>가 進行中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4) <스 구개음화>의 확산은 모음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交隣』의 시기에는 <저 : 저>의 合流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 3.3. /ㅅ/과 /ㅅ tj/의 합류

#### 3.3.1 全一道人和物名

『全一』과 『物名』에서는 /ㅅ/과 /ㅅ tj/의 가나(假名)표기가 엄밀히 구별되어 대체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사 : サ(sa)	全一 20 (사름의)	サラミ sarami
	物名 13オ(사름)	サラム saramu
	物名 20オ(삼촌)	サムソ*ン samuso*N
샤 : シ(si)ヤ(ya)	全一 21 세상의	セシヤギ sesiyagi
	全一 53 좌상(의)	サ*シヤグイ sa*siyagu'i
	全一 32 상셔	シヤグセイ siyaguse'i
	全一 46 상천이	シヤグテ*ニ siyagute*ni
	物名 12オ(샹고)	シヤング siyaNgo 町人
소 : ソ(so)	全一 82 소밥	ソバブ sobabu
	全一 85 (송적의)	ソグソ*クイ soguso*ku'i
	物名 17ウ(손즈)	ソンザア soNza'a 孫子
	物名 21ウ(손가락)	ソンカラク soNkaraku
쇼 : ショ(siyō)	全一 123 쇼야지	シヨヤチ siyoyati
	全一 122 쇠	シヨイ siyo'i
	全一 91 (쇼년울)	シヨネ*ヌル siyone*nuru
	物名 19ウ(쇼년)	シヨウニエン siyo'unieN 少年
수 : ス(su)	全一 18 술의	スロイ suro'i
	全一 113 쉬온	スイホン su'ihon
	全一 85 쑤어	スワ suwa

슈 : シュ(siyu)	物名 9オ (女)	スツ sutu	
	全一 37 순류	シユルリユ siyururiyu	
	全一 110 (국슈에)	クーシユヲイ kusiyuwo'i	
	物名 31オ (슈박)	シウバク si'ubaku	
서 : ソ(so)	物名 16オ (슈령)	シウレグ si'uregu	
	物名 17オ (숙모)	シュグモウ siyugumo'u	
	全一 106 (서랴)	ソロ soro	
	全一 112 버서	ホ*ソ ho*so	
	物名 21オ (눈섭)	ヌンソブ nuNsobu	
	物名 4オ (서리가)	ソウリカ so'urika	
	物名 6ウ (섯돌)	ソツタル sotutaru	
	셔 :セ(se)/セイ(se'i)	全一 44 성되	セグドイ segudo'i
		全一 25 도셔	チヨセ tiyose
		全一 26 천성이	テ*ンセギ te*Nsegi
全一 32 상셔		シヤグセイ siyaguse'i	
全一 33 주셔라		チュセイラ tiyuse'ira	
全一 91 선성이		センサギ seNsagi	
物名 10オ (섬)		セム semu	
物名 12オ (뵙성)		ハ*クセグ ha*kusegu	
物名 1オ (셔뉴)		セグニウ seguni'u	
物名 7オ (췌석)		チウセク ti'useku 秋夕	
세 : ソイ(so'i)	全一 26 두세번	トウソイバン to'uso'ibaN	
	全一 81 (세번을)	ソイバヌル so'ibanuru	
세 :セ(se)/セイ(se'i)	全一 103 세시(면)	セイシメン se'isimeN	
	全一 21 세상의	セシヤギ sesiyagi	
	全一 113 세간의	セカヌイ sekanu'i	
	全一 70 세준이(라)	セチユニラ setiyunira	

### 3.3.2. 交隣須知

『交隣』에는 /s/ /과 /s+ j/의 합류를 보여주는 예가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슈>를 <스>로 표기한 예가 많으며, <샤>를 <사(sa)>로 표기한 예도 一례가 나타난다. 그러나, <쇼 : 소> 및 자립형태소의 <셔 : 서>는 아직 엄밀하게 구별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수>를 <시우(si'u)>로, <샤>를 <시아(siya)>로 표기한 예는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보아, /s/ /과 /s+ j/의 합류는 [j]가 [s]로 합류하는 음변화임을 알 수 있다.

#### 3.3.2.1. <수 : 슈>

<슈>는 5例 중 4例가 <스우(su'u)>로 나타나서, <수>, <스>, <쓰>의 가나(假名)표기와 구별되지 않는다. 또한, <췌슈>에 <치우(ti'u)시우(si'u)>와 <쯔우(tu'u)스우(su'u)>의 두 종류



의 가나표기가 나타나는데, 이는 구개음과 비구개음이 비변별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交隣 7-1	츄슈	チウシウ ti'usi'u
交隣 12-1	츄슈	ツウスウ tu'usu'u
交隣 12-5	미슈	ミスウ misu'u
交隣 4-4	순풍이 <sup>21)</sup>	スン푸ウギイ suN'ugi'i
交隣 2-1	장슈	チヤムスウ tiyamusu'u
交隣 3-1	분수를	フンスウルー buNsu'uru
交隣 18-5	쓰어	スウラー su'uwo

### 3.3.2.2. <사 : 샤>

<샤>를 <사(sa)>로 표기한 예도 있지만, 대체로 구별되어 표기되어 있다.

交隣 3-2	상히	サムハイ samuha'i
交隣 3-5	블샹	パルシヤム parusiyamu
交隣 2-3	상성은	シヤムセグン siyamuseguN
交隣 2-2	삼티성	サムタイセグ samuta'isegu
交隣 2-1	사름은	サアラグン sa'araguN
交隣 2-2	삼공의	サムコグイ samukogu'i

### 3.3.2.3 <소 : 쇼>

<소>는 <ソ(so)>로 나타나며, <쇼>는一例뿐이지만 <シヨ(siyō)>로 표기되어 있다.

交隣 14-1	풍속이	ブンシヨウキイ puNsiyo'uki'i
交隣 8-5	소리	ソロイ soro'i
交隣 5-1	활쏘기	ハアルソキイ ha'arusoki'i
交隣 6-3	쇠나기	ソイナアキイ so'ina'aki'i

### 3.3.2.4. <서 : 셔>

이 대립은 엄밀히 구별되어, <서>는 <ソ(so)>로, <셔>는 <セ(se)>로 표기되어 있다.

交隣 2-3	서로	ソウロ so'uro
交隣 17-5	섯돌	ソツタル sotutaru

21) 物名에서는 <シユ>로 나타난다.

物名 3ウ (순풍이울시) シユンフ\*ウキヤルソイ

交隣 1-2	불서	パルセ paruse
交隣 15-5	셔가여러	セカヨウライ sekayo'ura'i
交隣 17-1	츄석이	ツウセーキイ tu'useki'i
交隣 2-3	상성은	シヤムセグン siyamuseguN

단, 『交隣』에 있어서 語尾의 <셔>는 주로 <사(sa)>로 표기되어 있다. 참고로 『全一』에는 語尾의 <셔>가 주로 <시야(siya)>로 표기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표기의 차이도 [ʃ]가 [s]로 바뀌는 음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交隣 14-3	가셔	カサア kasa'a
交隣 10-1	모와셔	モワサア mowasa'a
交隣 6-4	와셔	ワイサア wo'isa'a
全一 62	어려셔	ヲレシヤ woressiya
全一 34	맛셔	マシヤ masiya
全一 35	저머셔	テ*マシヤ te*masiya

3.3.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슈 > 수] 의 변화의 경향은 강하게 나타난다.
- 2) [샤 > 사] 의 변화는 一例 뿐으로, 이 시기까지 <사>와 <샤>는 아직 구별되는 것으로 보인다.
- 3) [쇼 > 소]와 [셔 > 서] 의 변화의 예는 나타나지 않는다.

#### 3.4. 어두의 /ㄹ/과 /ㄹ/

현대서울방언에서, 어두의 /ㄹ/은 /ㄹ/으로 되고, 어두의 /ㄹ/은 /i/와 /j/의 앞에서 탈락<sup>22)</sup>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예이다.

全一 62	어려셔	ヲレシヤ woressiya
全一 26	(레과)	レイクア re'iku'a
全一 60	(레일)	レイイル re'i'iru
全一 65	(네를)	ネ*イル ne*iru
全一 110	넘뷔	ネ*ムブイ ne*mubu'i
全一 113	넘정	ネ*ムテ*グ ne*mute*gu
全一 35	넝험이	ネ*グホミ ne*guhomi
全一 54	넝통	ニヨブトグ niyobutogu
全一 76	너롬지(이)	ネ*ロムジイ ne*romuzi'i
全一 77	넝장	ネ*ムザグ ne*muzagu

22) 李基文(1972b:69)은 18세기 후반의 문헌에 /ㄹ/탈락의 예가 나타나는 것을 근거로, <ㄹ 탈락>이 <ㄷ 구개음화>보다 후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였다.

全一 79	녕혼을	ネ*グホヌル ne*guhonuru
全一 82	(녀름이면)	ニヨロミメン niyoromimeN
交隣 12-3	년호여	ニエンハヤ niweNhaya
物名 6オ	(뉴월) 六月	ニウヲル ni'uworu
物名 11ウ	(농궁) 龍宮	ニョンググ niyoNgugu
物名 27オ	(농) 龍	ニヨク niyoku
物名 12オ	(냥반)	ニヤグバン niyagubaN
交隣 16-4	뉴월의논	ニウヲールイ ni'uworu'i
交隣 11-1	냥쥐니	ニヤムスイニイ niyamusu'ini'i
交隣 11-4	녀름은	ニヘロウグン nihero'uguN

위의 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全一』에는, 어두의 /ㄹ/이 /i/와 /j/의 앞에 나타나는 예도 있지만, 대체로 /ㄴ/으로 나타난다.
- 2) 『物名』과 『交隣』에는 어두의 /ㄹ/은 나타나지 않고, /ㄴ/으로 나타난다.
- 3) 세 자료 모두에서, /i/와 /j/의 앞에 나타나는 어두의 /ㄴ/이 가나(假名)표기에 반영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ㄴ/탈락은 『交隣』의 시기까지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 4. 맺음말

본고에서는 일본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어의 구개음화와 관련된 음운현상을 살펴보았는데,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語音翻譯』의 분석으로는, 당시의 /ㅅ/에 구개변이음이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
- 2) 『全一』, 『物名』, 『交隣』의 비교를 통해 볼 때, <ㄷ 구개음화>는 <ㅅ 구개음화>보다 시기적으로 빨랐음을 알 수 있다.
- 3) 본고에서 다룬 음운과정을 문헌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음변화가 일어난 경우에는 「O」로, 부분적으로 일어난 경우에는 「△」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X」로 표시한다.

	全一	物名	交隣
<ㄷ 구개음화>	○	○	○
<ㅅ 구개음화>	X	X	△ <자 ; 자>는 구별되지 않는다. <주 : 슈>와 <조 : 죠>는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 <저 : 저>는 아직 구별된다.
<ㅅ : ㅅ +j>의 합류	X	X	△ <슈>와 <수>는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 <슈>는 대부분 <스우>로 표기되어 있다. <샤>는 <샤>로 표기된 예도 있지만 대부분 <샤>로 표기되어 <사>와 구별된다. <소 : 쇼> <서 : 셔>는 구별되어 있다.
어두의 /ㄹ / > /ㄹ /	△	○	○
/ㄹ / 탈락	X	X	X

參考文獻

金周弼(1985), 「口蓋音化에 관한 通時論的研究」, 國語研究會, 서울대학교

金周弼(1994), 「17.18世紀 國語의 口蓋音化와 關聯 音韻現象에 대한 通時論的研究」, 서울대학교 博士學位論文

宋敏(1986), 『前期近代國語音韻論研究』 國語學會, 國語學叢書 8, 담출판사

李基文(1972), 『國語史概說』 塔出版社

李基文(1990), 『國語音韻史研究』 國語學會, 國語學叢書 3, 담출판사

李明奎(1990), 「口蓋音化」, 『國語研究 어디까지 왔나 - 주제별 국어학 연구사』, 동아출판사

鄭光(1996), 「日本對馬宗家文庫所藏의 韓語物名에 대하여」, 李基文教授停年退任記念論叢,

許雄(1985), 『국어음운학-우리말 소리의 오늘, 어제-』, 샘문화사

李康民(1993), 「對馬宗家文庫所藏の物名について」, 『朝鮮學報』 148

伊波普猷(1932), 「海東諸國記附載の古琉球語の研究一語音翻譯釋義一」 『伊波普猷全集』 第四卷(1974)

岸田文隆(1998), 「アストン舊藏の『交隣須知』關係資料について」, 『朝鮮學報』 167, 1-39

岸田文隆(2000), 「アストン舊藏江戸期明治初期朝鮮語學習寫本類調査報告」, 『靑丘學習論集』 第 17集, 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多和田眞一郎(1994), 『沖繩語の音聲・音韻に関する歴史的研究』 武蔵野書院

趙燭熙(2001), 『朝鮮資料による日本語音聲・音韻の研究』, J&C

陳南澤(2001), 「韓國語의 口蓋音化에關する一考察 -朝鮮資料を用いて-」, 『言語學論集』 20號, 東京大學言語學科大學院

辻星兒(1997), 『朝鮮語史における捷解新語』 岡山大學文學部研究叢書16

服部四郎(1978a), 「日本祖語について・7」 『月刊 言語』 78年 9月號

服部四郎(1978b), 「日本祖語について・8」 『月刊 言語』 78年 10月號

服部四郎(1979), 「語音翻譯を通して見た15世紀末の朝鮮語の發音」, 『言語の科學』 7, 東京言語研究

安田章(1964), 『全一道人の研究』 京都大學國文學會

安田章(1987), 『改修捷解新語』 解題, 京都大學國文學會